

[위피백과]

수능국어_이십세기

: 1994~2000 기출 선별

〈2주차 해설지〉

위피_심프 ver.

[1~4]

역사가 옛날로 올라갈수록 개인의 비중이 사회보다도 컸던 것 같다. 사회 구조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산업과 정치가 현대와 같은 복잡 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므로, 마치 사회는 개인을 위해 있으며, 개인이 사회를 주인들인 것같이 생각되어 왔다.

키워드 잡읍시다. '개인', '사회'가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화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정도이겠군요. 실제로 개인이 크나 사회가 크나, 옛날에는 개인>사회 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 옛날 : 개인 > 사회
- 사회 구조 = 개인 중심
- 복잡 사회 X(산업, 정치)
- 사회 = 개인을 위해, 개인 = 사회의 주인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 화제 찾기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개인보다도 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영국을 출발점으로 삼는 산업 혁명은 경제의 사회성을 강요하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인 사회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현대 사회로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가 개인에 우선한다는 소리를 하네요. 역시나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눈여겨 볼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옛날에는 ~ / 현대 사회에는 ~ 이런 식으로 진행되네요. 그리고 사회>개인인 이유를 예시와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잘 봐줍시다.

- 현대 사회 : 사회 > 개인(사회 중심)
- 산업 혁명 : 경제의 사회성
- 프랑스 혁명 : 정치적 사회성

주목해야할 점 : 화제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시간의 흐름, 예시 등장

19세기 중엽에 탄생된 여러 계통의 사회 과학을 보면, 우리들의 생활이 급속도로 사회 중심 체제로 변한 것을 실감케된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개인이 중심이고 사회가 그 부수적인 현상같이 느껴졌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회가 중심이 되고 개인은 그 사회의 부분들인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든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부터 그 성격이 점차 굳어졌다. 실제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내가 살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때의 '우리'라 함은 (정치, 경제 등의 집단인 사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9세기'라는 시대와 함께 계속 옛날 VS 현대를 비교하고 있어요. 단계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시대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관계의 차이점이 비교/대조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시다.

내용정리 들어갈게요,

- 19세기 중엽 사회과학 : 사회 중심 체제
- 옛날 : 개인 중심, 사회 부수
- 현대 : 사회 중심, 개인 부수
- > '우리'가 살고 있음(정치, 경제 등)

현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정당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함은 별개의 문제이다. 일찍이 키에르케고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하게 호소한 바 있다. 오늘날까지도 사회와 개인에 대한 대립된 견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전부이며 개인은 의미가 없다든지, 개인의 절대성을 주장한 나머지 사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도 모두 정당한 견해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개인 속에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발견하며,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을 발견한다. 사회와 개인은 서로 깊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개인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생각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옛날과 현대의 '개인 VS 사회' 구도를 부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개인과 사회 둘 중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네요. 역시나 키워드와 화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키에르케고르, 니체 : 개인의 존엄성, 가치 주장
- 사회 VS 개인 : 대립 = X
- 사회 - 개인 = 상호작용 : 개인 속에서 사회 발견 + 사회 속에서 개인 발견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와 화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 전개 + 글쓴이의 주장 + 양측의 입장 반박(절충)

그러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사람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원자와 물질의 역학적 관계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 (원자가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질이 없다면 원자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존재성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다 설명될 수는 없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세포와 유기체의 관계와 같이 생각한다. (생명적 존재를 위한 생성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은 스펜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존재나 생성의 과정에 그치지 않는 보다 높은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면서 생성하며, 생성하면서 문화 역사를 창조해 가는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발견과 비약을 가능하게 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파파 대놓고 아까 우리가 잡은 키워드 + 화제를 문두에 던져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맞아 키워드 찾고 화제잡자 ㅋㅋ

[5~8]

5. ⑤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시 옛날 문학이 뚝배기 터뜨리는 데에는 선수네요.

그치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첫 번째 줄에 주목해봅시다.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떨어져도 마음 놓고 지낼 작정이나”

서로에게 무관심한(서먹한)상황에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라는 대목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인간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라)는 죄다 아내의 물건을 갖고 노는 등 아내(타인)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 ②

‘아내’와 대화는 안합니다. 아내가 없는 집 안에서 혼자 헛짓거리 하고 놀고 있죠.

① (나)에서 ‘돋보기를 꺼내들고 ~’ (다)에서 ‘~ 가지 각색의 화장품 별들을 들여다본다’와 같은 대목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③ (나)에서 ‘아내가 외출만 하면 ~ 내 오락이다’라는 대목을 통해 맨날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라)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⑤ 집안에서만 돌아다니죠. 아내방, 내방, 이불 속 이런 식으로요.

7. ④

아내 화장품 가지고 신나게 놀니다.. 그러면서 싱글벙글 해요.

8. ⑤

‘나는 ~ 베개와도 같은 한 별 신경이었을 뿐’한다는 부분에서 베개와 ‘나’를 형상화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대놓고 ‘나는 ~ 베개 같은’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참 ㅋㅋ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기엔 괜찮은듯합니다.

지붕은 집이 위치하는 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지붕의 형상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지역의 기후라고 할 수 있다. 지붕의 크기는 처마의 깊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처마의 깊이는 처마 폭에 의해 결정되는데, 처마 폭은 도리로부터 지붕 끝까지의 너비를 말한다. 처마가 깊다 깊지 않다 하는 것은 기둥의 높이에 비해 처마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가늠하여 하는 말이다.

지붕, 그중에서도 처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지붕, 처마, 환경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화제는 환경과 지붕, 처마의 관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처마(지붕)이 어떻게 구성될까?, 특히 ‘처마 폭’이라고 구체화시켰으니 ‘환경에 따라 처마 폭이 어떻게 될까?’까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 푸실 땐 키워드 잡고 맨 처음 이야기한 화제만 잡으셔도 됩니다.

‘환경에 따라 처마 폭이 어떻게 될까?’라는 화제는 사실 약간 사후적인 사고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 번에 생각해내긴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치만, 키워드를 바탕으로 화제를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 지붕 : 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
- 크기 : 처마의 깊이 설정
- 처마의 깊이 = 처마 폭에 결정
- 처마 폭 = 도리부터 지붕 끝까지 너비,
- 처마가 깊지 X = 기둥 높이에 비해 처마 폭이 얼마나 넓은지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 화제 찾기

처마를 깊게 잡는 구조는 우리나라 건축의 특색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태양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은 시원 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부 지방, 대략 북위 38도선 부근에서의 하짓날 태양의 남중 고도는 약 70도의 각도를 지닌다. 중천에 뜬 태양이 이글거리며 피약별이 쏟아진다. 그러나 깊은 처마가 차양이 되어 그늘을 드리우기 때문에, 방안이나 대청에서는 나무 그늘 밑에서와 같은 시원함과 청량감을 느끼게 된다. 동짓날 태양의 남중 고도는 대략 35도 가량이다. 낮게 뜬 해가 따뜻한 햇살을 방속 깊숙히 투사하여 준다. 따뜻해진 공기는 깊은 처마의 삼각상대에 머무른다. 방의 열을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빼앗아 가려고할 때, 이 삼각상대의 따뜻한 온기가 상당한 저항 작용을 하여, 그만큼의 훈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날씨(환경)에 따라 처마폭을 깊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하니까 처마를 깊게 잡는답니다. 그냥 화제 잡고 쪽 이어나간다는 느낌만 받아주시면 돼요.

처마를 깊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건축 자재의 취약성과 생활 관습을 들 수 있다. 목재가 집을 짓는 자재의 중심이 되던 시절에는 습기에 약한 목재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낙숫물이 튀어 나무에 닿지 못하도록 처마를 깊게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농사를 짓는 데는 깊은 처마가 필요하였다. 농사에 쓰이는 연모나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일차 적인 장소로 처마 밑이 알맞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업장으로도 유용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처마는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

처마를 깊게한 이유가 또 제시됩니다. 역시 화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한 번 가볍게 짚어주시면 됩니다. 담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 처마를 깊게하는 이유
- 목재 집, 농사 - 곡식 저장, 작업장

이렇듯이 자연 여건 및 생활 관습이 반영된 처마는 우리나라 건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농가의 자그마한 살림집뿐만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도 그대로 채택되어, 규모가 큰 기와집이라 할지라도 깊은 처마를 가지게 되었다. 기와 지붕은 초가 지붕의 구성에서 발달한 것이며, 처마 구성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곡선 모양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형태와 아름다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와! 구체화된 화제를 대놓고 던져줍니다. 환경이 반영된 처마 모양! 처음 키워드를 바탕으로 뽑아낸 포괄적인 화제를 머릿속에 집어 넣고 읽어내려 가면서, 화제를 구체화시켰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서, 화제를 명확하게 잡아냈다면 완-벽... 물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수능은 한참 남았으니까 천천히 연습해봅시다. (어십세기와 피램과 함께...)

내용 정리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구체화된 화제를 캐치해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주목해야할 점 : 화제의 구체화(확정)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화제를 찾기 쉬웠고, 점점 뒤로 갈수록 화제가 뚜렷해지는 구성입니다. 저는 화제, 구조무새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골라왔습니다. 지문이 쉽다고 넘기지 마시고 부디 얻어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 ③ 지붕, 그 중에서도 처마 폭이 왜 깊어지는지 날씨와 생활환경(농사 등)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① 한옥의 특징? 건축 양식? 둘 다 아닙니다.
- ② 건축자재 분류,,? 가볍게 지읍시다.
- ④ 종류에 따른 설명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니다.

⑤ 시대에 따른 변화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0. ②

집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키워드와 화제를 잘 잡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환경에 따른 처마 모양을 설명하고 있죠. 처음 잡았던 화제도 '환경과 지붕, 처마의 관계'로 집의 규모와는 아~무 상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③, ④, ⑤ 모두 날씨나 생활 양식과 같은 환경과 관련한 본문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 ②

어허.. 역시나 화제네요... 환경에 맞춰서 지붕(처마)의 형태가 나타난다(깊게) 쉽습니다.

① 지붕의 크기겠지요?

③ 지붕의 재료와 보온 상태는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어요. 차라리 처마 폭이 깊으면 추울 때 따뜻하다 이 내용이 맞는 말이겠네요. 역시 화제만 잘 잡으면 해결 가능합니다.

④ 재산상태? ㅋㅋ 헛소리내용...

⑤ 치장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왔나요.. 역시나 헛소리

[12~16]

12. ②

나 죽으면 칼머리나 들어주어, 나를 죽여 내어 놓거든 ~~이런 식으로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에 단념한 채로 서방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 ②

'저 늙은이 성질에 괴변이 날 테니'라고 짐작하고 속인다고 합니다. 장난(?)치고 있네요. 해학을 통한 긴장이완 충분히 해석 가능합니다.

14. ①

내일 죽게 생겼는데 서방님 안부부터 묻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② '㉠을 근거로'입니다. 정절을 지킨다는 내용을 어떻게 ㉠을 근거로 알 수 있나요? 이 선지를 고르셨다면 '지문과 문제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실망감은 아니지요

④ 자신의 죄를 고백...? 헛소리인거 아시죠?

⑤ 죽는 거 체념하고 있는데 구해줄거라 믿는다구요? 심지어 ㉠에는 그런 믿음이 일체 드러나지 않습니다.

15. ⑤

할 말이 있지만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춘향이 어머니가 왜 말 못하냐! 나 때문이냐? 라고 아니꼬워합니다. 심지어 반말까지 하죠.

추가로 이후에 마나님 말씀 곡해말라는 말을 통해 적어도 반어법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불만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진심 아닌거 알지?'라는 식으로 돌려서 달래는 느낌이죠? 맥락 상 캐치합니다.

③ 역시나 뒷부분의 곡해말라라는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거라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굳이 오해하지마라며 당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춘향이 어머니가 찢텐으로 짜증내니까 달래려고 그러는 겁니다.

16. ③

집어 넣어보면 바로 맥락상 의미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휘문제를 풀 때는 우선 갖다 끼워보세요. 그럼 답이 어지간하면 다 나옵니다.

오답을 완벽히 걸러낼 필요까진 없더라도 맥락 상 정답을 유추해낼 수는 있어야해요. 그것만 연습해봅시다.